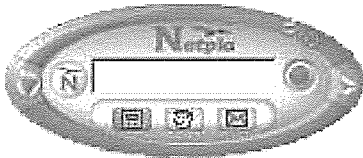




한글도메인 검색 넷피아 각광



▲ 한글을 입력해 인터넷사이트를 찾는 넷피아.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영문 도메인(URL)을 전혀 몰라도 해당 사이트의 한글 도메인(서울대학교, 청와대 등)만을 입력하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한글 도메인 넷피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한글 도메인은 영문 URL의 복잡함과 비영어권 지역에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인터넷 한글 도메인이다. 널리 알려진 기업명, 개인 고유이름이나 판매되는 제품의 등록된 브랜드네임으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편리하여 네티즌 유인효과가 뛰어나다. 실제로 기업이름이나 한글의 브랜드명을 알고는 있으나 영어로 된 스펠링이나 인터넷주소를 몰라 고객을 유인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게 현실이다.

요즘 많은 기업이 광고에 고유 브랜드명을 알리고 함께 영어로 된 인터넷주소 '더블류 더블류 더블류 점 영어로 된 기업이나 브랜드 스펠링

점 씨오점 케이알' 이라고 한글식 영어발음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어렵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피아 시스템의 인터넷 한글 주소는 도메인네임 없이 그냥 우리글로 브랜드나 기업이름을 쓰면 된다. 그만큼 편리한 홍보 효과와 고객유인의 효과가 동시에 있다. 또 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여러 개일 경우 원하는 만큼 한글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하다.

현재 넷피아의 인터넷 한글 도메인은 이용자의 편리성으로 월 사용자가 3백만건을 넘어섰고 가등록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이트의 수 또한 월 1천개가 넘는 등 저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글 도메인으로 등록된 사이트는 바로 접속되고 등록되지

용자라면 누구나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넷피아는 9월부터 유료화를 선언, 한국전산원의 개인 도메인 등록과 기업 도메인의 유료화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터넷 브랜드 자산에 대한 열풍이 또 한번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도메인의 경우 2년간의 한글 도메인 등록비용이 10만원이다. 한글 도메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넷피아의 홈페이지(<http://www.netpia.com>)나 등록 대행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 회사 이판정사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물론 비영어권 국가와 연계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 시스템의 공동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쇼핑몰사이트



▲ 한솔CSN은 회원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CS서비스를 실시한다.

않는 사이트는 협력 검색사이트에서 곧바로 검색할 수 있기에 인터넷 사

인터넷 쇼핑몰을 찾는 고객을 끌기 위해 일대일 마케팅을 추진하거나 고

객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한국일보는 인터넷하우스와 공동으로 쇼핑몰 상품검색서비스인 '원스톱쇼핑'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검색로봇을 이용, 인터넷상의 모든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 가운데 가장 싼 제품정보를 찾아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솔CSN은 회원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CS'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구매주기를 분석해 고객이 필요할 때 쯤 상품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한솔CSN은 '제일 싼 사이트'라는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나 고객들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쇼핑몰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코스닥에 등록해 눈길을 끌었던 인터파크는 올해 안에 항해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 고객이 검색하는 상품은 물론 구매한 제품의 시기와 수량정보를 고객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구입하는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SDS의 유니플라자는 고객들을 직업, 연령 등 다양한 그룹으로 나눠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채팅을 통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쇼핑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아시아 톱50 웹사이트'

인터넷 한국일보(www.hk.co.kr)가 아시아 톱50 웹사이트에 선정됐



▲ 아시아 톱50에 선정된 인터넷 한국일보.

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정보회사 아시아코가 아시아 웹사이트들의 조회건수 등을 조사해 최근 선정한 '아시아 톱50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한국일보는 28위에 랭크됐다.

인터넷 한국일보는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스, 소년한국, 주간한국, ELLE PREMIERE 등 8개 매체의 기사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과거 기사의 검색과 여론마당을 통한 독자의견 제안이 가능한 최고 권위의 뉴스전문 홈페이지이다.

우리나라 웹사이트로는 한국관련 영문 인터넷사이트인 코리아링크(www.korealink.com)가 20위로 가장 높은 등위에 올랐다. 코리아링크는 미국 로스앤젤리스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웹사이트이다. 또 북한의 고려여행사 홈페이지(www.koryogroup.com)가 31위에 올라 최근 아시아인들이 북한을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아시아의 정

치·경제·문화·여행 등을 안내하는 다국적 사이트인 아시아드래곤즈(www.asiadragnons.com), 2위는 조사를 벌인 아시아코가 운영하는 아시아 각국별 경제·여행 전문검색사이트(www.asiaco.com), 3위는 일본어 검색엔진인 야후 제팬(www.yahoo.co.jp)이 선정됐다.

톱50에 선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시아코의 아시아 톱50' 로고를 표시, 방문자들이 아시아 최고의 웹사이트임을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선사이트 등장



▲ 광고를 보면 자선을 베풀게 되는 사이트.

클릭만 하면 온라인으로 불우어린 이에게 자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자선사이트가 생겼다.

(주)디지털 오프는 최근 클릭만으로 온라인 자선을 할 수 있는 사이트(thegood.co.kr)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들은 단지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한사람이 하루 한번만 클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 스폰서는 9개로 구성되며, 클릭한 지원금액(한번 클릭에 광고 스폰서당 5원)은 광고 스폰서에 의해 직접 지원대상에게 전액 전달된다.

또한 회원으로 등록하면 자기가 돕고 싶은 지원대상을 직접 지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비영리기관에서부터 개인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파트너 쇼핑몰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 정해진 일정 비율이 자기가 미리 지정했던 지원대상에 직접 전달된다. 물건값이 동일한 것은 물론이고 추가 부담없이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또 정계, 재계, 연예계 등 각계 유명인사의 소장품이나 기업들의 신상품을 경매에 붙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 경우 경매를 의뢰한 유명인사나 기업에서 돕고 싶은 지원대상을 정하게 되며, 사이트 회원들만 이 경매에 응찰할 수 있다.

음란물차단 특별조치 발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근절을 위한 사이버 국경선이 설치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넷츠고(SK) 등 국내 인터넷 서

비스제공업자(ISP)에 대해 외국서버를 이용한 한글판 음란사이트 및 포르노물의 유통을 차단키 위한 특별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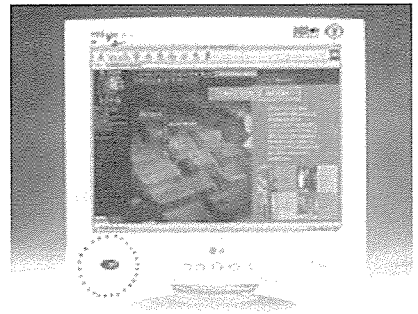
그동안 국내서버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단속해왔으나, 외국사이트나 국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외국 서버를 이용해 유통시키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ISP에 대해 사이버 포르노물 취급 거부명령을 내려 인터넷상 포르노물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인터넷상 포르노물을 19세 미만 청소년은 접속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 판보에 게시해 ISP가 이 포르노사이트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배포·대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문제를 협의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ISP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등록 취소 및 폐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색 컴퓨터 모니터 붐물

다양한 기능과 함께 화려한 외양이 돋보이는 이색 모니터가 쏟아지고 있다. LG전자는 모니터에 '눈'이 달린 제품을 최근 내놓았다. 21인치 하이



▲ LG전자의 눈이 달린 모니터.

싱크(HiSync221U)는 주위 조명이 따라 모니터가 알아서 색상·밝기·명암 등을 조절, 인간의 눈에 가장 편안한 상태로 화면을 바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오는 눈의 피로를 막아주는 '디지털 아이(Digital Eye)'가 TV가 아닌 모니터에 채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데스크탑과 만난 LCD(액정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속속 나오고 있다. LCD 모니터는 기존 브라운관 모니터에 비해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비교적 가벼워 일체형 PC에 주로 채택된다. 13.1인치 모니터 대우통신의 '디노'나 LG LCD로부터 15.1인치 모니터를 받아 생산한 제주 C&C의 '휘슬러' 모두 액정모니터를 사용한 컴퓨터들이다.

모니터의 두께를 줄인 공간절약형도 눈에 띈다. 현대전자의 17인치 모니터 '딜릭스 스캔'은 두께가 393mm로 기존 17인치 모니터에 비해 60~90mm나 두께를 대폭 줄여 본체 밖으로 모니터가 보기 흉하게 빠져나오지 않는다. 무게도 3~5kg이나 가벼워졌다.

'누드 모니터'의 바람을 몰고온 애플 컴퓨터의 매킨토시컴퓨터 '아이맥'

에 이어 코리아 데이터 시스템스는 투명모니터를 장착한 일체형 PC '이머신즈 누드'를 곧 선보인다. 이 제품은 이미 일본에서 'e-one'이란 이름으로 판매돼 애플의 아이맥에 이어 판매 2위를 기록한 인기상품으로 신세대에 어필하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이 매력.

이 제품은 일체형 PC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국내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유해 '잔혹사이트' 주의보

최근 인터넷에 끔찍한 사고장면이나 엽기적인 범죄, 가학행위 등을 담은 홈페이지가 급속히 늘어 청소년에 미칠 해악이 우려되고 있다.

잔혹사이트라고 불리는 이런 홈페이지는 97년 고교생을 포함한 국내 네티즌들이 결성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피바다창작단'이 처음 만든 이래 숫자가 계속 늘어 지금은 국내에만 백여군데가 넘는다.

대표적인 곳이 한글로 표시되는 '돌아온 지옥' 홈페이지. 국내 네티즌이 개설한 이 곳은 국내외에서 잔인하기로 악명높은 사이트 수백개를 모아놓았다. 게재된 내용물은 총 맞은 시체, 교통사고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시신, 흉칙한 물골의 기형아, 강간살인 피해자, 각종 가학성 사진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역겨운 장면들이다. 특히 살인 후 시체를 능욕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게재된 홈페이지는 간접적으로 범죄를 교사하는 인상이 짙다.

얼마전 국내에서 중학생이 어린이

를 살해한 사건도 인터넷의 잔혹사이트를 보고 저지른 모방범죄로 밝혀져 그 피해가 음란물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의 음란·폭력물을 단속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폭력물을 게재 폐쇄시킨 홈페이지만 약 90군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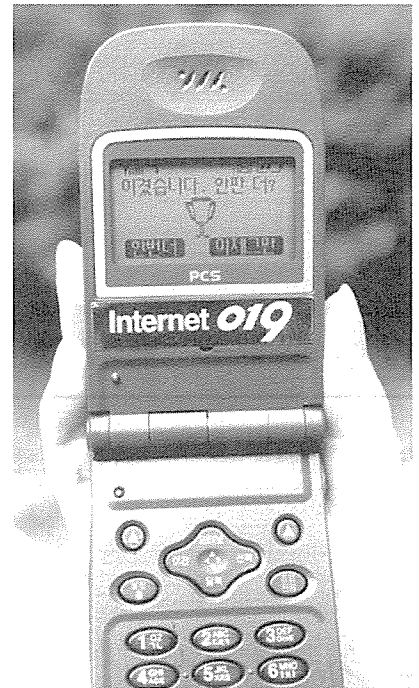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외국으로 주소를 옮겨 운영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 국내 대학생이 만든 '그냥 싫은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홈페이지도 특정 정치인들을 거명하며 살의를 부추겼다가 폐쇄당하자 주소를 옮겨 다시 개설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를 폐쇄하면 외국의 서버를 빌려 주소를 옮긴 후 더 자극적인 내용을 신고 있다"며 "외국 서버에서 돌아가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폭력물이나 음란물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도가 지나치면 충동범죄, 대인기피 등의 병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관련단체의 관심과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PCS폰으로 인터넷 게임을 즐기세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PCS(개인휴대통신)폰을 이용,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019 PCS사업자인 LG텔레콤은



▲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있는 019PCS.

PCS폰 하나로 다양한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게임방을 개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019 PCS가입자들은 웹브라우저가 내장된 PCS단말기(LGI-2100, LGP-7300F)로 인터넷에 접속한 뒤 게임메뉴에 들어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 즐길 수 있다. 단 LG텔레콤의 무선 인터넷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LG텔레콤은 무선 인터넷 게임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우선 다마고치게임, 블랙 잭, 퀴즈나라, 오목, 심리테스트 등 5가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숫자야구게임, 서바이벌 퀴즈 게임 등 게임종류를 다양하게 늘려갈 계획이다.

별도의 무선 게임방 이용료는 없고 무선 인터넷서비스의 요금만 내면 된다. ⑤7